

해남군, 전남도·CJ제일제당 손 잡고 육지서 김 생산

컨소시엄 구성 김 종자생산·육상양식 정부 공모사업 협력 육상양식, 생산량 높고 해양 오염도 낮아 김 양식 대안 부각

해남군이 '김 산업 발전'을 위해 유관 기관과 손을 잡았다. 해남군은 전남도·CJ제일제당과 김 산업 발전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 올해 공모 예정인 해양수산부 '김 종자생산 및 육상양식 공모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김 산업 발전을 위해 2029년까지 총 350억원을 투입해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 공모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지난 14일 군청에서 전라남도, CJ제일제당이 정부 공모사업 유치에 공동 대응하고, 김 육상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김은 전라남도 수산물 수출품 1위로, 수출 1조원을 달성하며 '김은 반도체'라 불릴 정도로 수출 효자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국 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 최초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과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우리나라 김 양식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다만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으로 30-50년 뒤에는 해상 김 양식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어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 1위 식품사 CJ제일제당은 지난 2018년부터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을 추진, 최초로 성공한 데 이어 전용 품종을 확보하는 기술력으로 관련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다.

해남군과 전라남도, CJ제일제당은 컨소시엄을 구성,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김 종자 개발 및 양식 실용화 연구, 육상양식 산업화 및 가공 실증을 통한 상품화, 육상양식 김의 수매와 유통, 판매 촉진 등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육상양식은 육상에 설비를 갖추고, 해수를 이용해 김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해양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 환경에서 김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상에 비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높고, 해양오염에 따른 위험도 낮아 김 양식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해남군은 '농어촌수도, 해남'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공모사업을 반드시 유치해 해남 어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해남군이 지난 14일 군청에서 전라남도, CJ제일제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 육상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남군 제공>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협약은 박지원 국회의원과 전남도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사됐다"면서 "김 양식 선도지역인 해남이 미래 김 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사업에도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물김 폐기지원금 5억9000만원 긴급 투입

과잉생산에 가격 하락... 양식 어가 포대당 최대 4만원

진도군은 물김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 양식 어민들을 위해 물김 폐기지원금 5억 90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금은 과잉생산으로 위판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물김에 대해 포대당(120kg) 최대 4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수확·물김생산자연합화·마른김합화·중매인 등과 물김 가격 하락 대책반을 구성해 주 1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불법시설 단속과 김 시설량

20% 자율감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김 수급 조절을 위해 ▲마른김 정부 비축 구매사업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비 지원 등 전라남도과 해수부에 관련 사업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진도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발생한 갑작스러운 이상기온으로 수온이 평년보다 높고, 4200ha의 면적 등이 추가되면서 물김 생산량이 급격히 늘었다.

특히 일본, 중국에서도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증가하고 러시아, 태국 등으로의 수출량이 감소해 물김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됐으며, 폐기 물량이 발생하는 등 김 양식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정부에서 지정된 김 산업 진흥구역인 우리 군이 전국 1위 김 생산지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김 품질의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 도시숲 올해 9곳 조성

23억 들여 실내 정원·경관 숲 등 동백나무·황칠나무 등 5대 수종

완도군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총 23억원을 투입해 도시 숲 조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 숲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 숲, 우수 한 산림 경관을 활용한 경관 숲, 학교 환경 개선 및 자연 학습을 위한 학교 숲 등이다.

군은 올해 군외면 원동리 1.2ha 면적에 지역 자생 난대수종을 심어 도시 숲을 만든다.

고급중에 학교 숲, 생활문화센터에 실내 정원, 완도·약산 경관 숲, 정산·군외·약산 가로수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완도호랑기사나무와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동백나무 등 완도군 5대 난대 향토 수종을 심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노화 건강 테마촌에 생활 밀착형 숲을 포함한 도시 숲 4개소, 국도 13호선 일원에 가



조성된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숲.

로수 2개소를 조성했다.

박은재 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완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지역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

후 발생이 증가해 숲을 포함한 산림의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어르신 '만성질환' 스마트폰으로 관리하세요

영광군, AI·사물인터넷 활용 스마트폰 앱 활용 건강 정보 제공 6개월간 관리...참여자 300명 모집

영광군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신규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어르신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자가 건강측정 정보를 보건소 시스템과 연동하는 프로그램이다.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맞춤형 비대면 건강 상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교육받은 후 등록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영광군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스마트폰과 연동된 손목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스피커 등 개인 질환 여부에 따라 건강 측정기가 지원된다.

'오늘건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지급받은 기기를 6개월간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영광군 보건소에서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영광군 제공>

제공하고, 혈압·혈당 체크·메일건기·제대 약먹기 등 미션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두 달에 5000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영광군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자가 건강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습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신안 '프리미엄 1004굴' 고급 메뉴 각광

수도권 고급 레스토랑·특급호텔 공급...3월 ASC인증 취득 예정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의 청정갯벌에서 자란 '프리미엄 1004굴'이 수도권의 고급 레스토랑과 특급 호텔에 공급되며 미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본격적인 유통을 시작한 '1004굴'이 국내외 미슐랭 셰프들 사이에서 품질을 인정받으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1004굴은 서해안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노출식 양식 방법'을 도입해 생산된다.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방식으로, 굴의 형태가 균일하고 색깔이 선명하며 맛과 풍미가 깊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굴과 달리 생식소가 발달하지 않아 사계절 내내 유통이 가능하며, 저온 보관이 용이해 신선한 상태로 유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신안군은 1004굴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출하 전 노로바이러스와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지속가능한 수산물 인증인 ASC(세계양식책임관리위원회) 인증도 오는 3월



1004굴을 납품받는 국내 유명호텔 고급식당의 굴 요리. <신안군 제공>

취득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굴의 패류생산해역 지정 추진과 품질 연구,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미식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 배경 영화 '써니 데이' 현지서 시사회

28일 완도문화예술의전당서 무료...주연 배우 등 참석



완도군을 배경으로 한 영화 '써니 데이' (sunny day) 시사회가 서울 용산 CGV에 이어 오는 28일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용산CGV 시사회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제작사인 삼거리픽처스 엄용훈 대표, 이창무 감독, 리주영 PD, 주연 배우인 최다니엘, 정혜인, 한상진, 김경화, 강은탁 등이 참석했다.

<사진>
영화 써니 데이는 이혼 소송 후 고향 완도로 컴

백한 슈퍼스타 오선희(정혜인)가 첫사랑이었던 순정남 조동필(최다니엘)과 고향 친구들을 만나 새로 시작할 용기를 찾는 내용이다. 써니 데이는 19일 개봉하며 오는 28일 오후 6시30분 완도문화 예술의전당에서 주연 배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 시사회가 열린다.

완도군은 영화 써니 데이를 통해 정정 이미지를 알려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판타지·액션·사극 '공룡 웹툰' 공모

해남공룡박물관 6월13일까지

해남공룡박물관은 제1회 공룡 웹툰 공모전을 실시한다.

참가 자격은 2009년생(17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인 웹툰 작가 지방생부터 웹툰을 사랑하는 일반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르 역시 판타지, 사극, 액션 등 자유롭게 표현 가능하다.

주제는 세계 유일하게 별 문양이 있는 대형 초식 공룡발자국으로, 공룡박물관 내 조성된 보호각에서 볼 수 있다.

1인당 1작품을 응모해야 하며, 작품은 스크롤

기준 20 스크롤 이상 단편 웹툰 완성작과 대표 이미지(표지)를 제출해야 한다. 6월 13일까지 접수한다. 입상자 10명을 선정해 수상별로 시상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해남공룡박물관은 지난 2007년 개관해 500여 점의 공룡 관련 화석과 희귀 전시물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 공룡박물관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공룡과 웹툰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해 젊은 세대가 공룡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룡을 사랑하는 창작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